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미술사 대가 엄선 '걸작 반가사유상'

문명대 교수 '한국의 반가사유상'
韓반가사유상 걸작 엄선해 해설
반가사유상, 미륵신앙 대변 불상
"한반도, 미륵반가사유상의 성지"
암각화·韓조각사 해설서 준비중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는 이만큼 인간의 실존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진실되게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일본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에게 보낸 찬사다.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이 신라에서 전해진 불상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반가사유상들은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매력을 가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상설로 전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한 '사유의 방'을 개관 3개월만에 10만 명이 다녀간 것도 반가사유상에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이 있어서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1세기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는 100여 점만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에도 세계 최고 걸작이라고 평할 수 있는 반가사유상들이 있다.

한국불교미술사학의 대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보 78·83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 충주 봉황리 마애반가사유상, 단석산 마애반가사유상을 꼽는다. 이들에 대해 문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한국의 반가사유상〉에서 "한국 미술의 최고 걸작품이자 세계 미술의 정점에 있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불교조각"이라고 평한다.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원로학자가 연구했던 반가사유상에 대한 개론과 걸작 반가사유상 6선의 상세한 해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반가사유상의 조형이 싯다르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번뇌를 보고 사유하는 모습인지, 미륵보살이 사유하는 모습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문 명예교수는 '미륵보살'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6~7세기 한반도는 유가유식 사상이 성행했으므로 그 사상의 시조이자 교주인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이 유행했다. 그렇기에 태자와 비슷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승화된 미륵보살을 낭도(郎徒)의 신앙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반도는 미륵반가사유상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원로학자가 선정한 걸작 반가사유상 6선에 대한 해설들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금동반가사유상"이라며 "장식적이면서 강직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문 명예교수는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이 "영주 흑석사나 북지리 대사 등 삼국시대의 유가유식계 고찰에서 봉안됐던 불상"으로 추정하며 고구려가 영주 지역을 점령했던 시대의 고구려 장인이나 그 후예 장인들이 조성한 "고구려 영향의 신라 금동반가사유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우아한 반가사유상의 정점에 서 있는 세계 최고의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은 현 높이 172cm, 복원 총 높이 450cm 내외의 초대형 석조반가사유상이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반가사유상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초대형 반가상이지만 애석하게도 허리 이상인 상체와 머리 부분이 절단돼 없어져 그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문 명예교수는 "이 상은 암반 위에 건립된 금당 안에 봉안됐던 유가유식계 사찰의 본존미륵반가사유상인데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상이 500m 떨어진 수월암 석실 속 마애(미륵)불상"이라면서 "신라의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소개한 충주 봉황리 마애반가사유상과 단석산 마애반가사유상에 대해서도 "신라 유가유식 신앙의 예배상으로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최고 걸작들"이라고 강조했다.

반가사유상 해설서를 집필한 문 명예교수의 나이는 올해로 83세이지만, 학구열은 지금도 젊은 학자 못지않다. 당장 올해 10월 중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서를 발간하며, 내년에는 한국의 조각사를 망라하는 개론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세계유산 통도사·미륵사지, '미디어아트'로 장엄

문화재청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9~11월 전국 8개 지자체서 열려
통도사, 첫 참가… 9월 3일 개막
다양한 '미디어쇼'로 사찰 수놓아


올해 처음 선보이는 통도사의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와 익산 미륵사지가 최첨단 미디어아트로 장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다양한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한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를 개최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익산 미륵사지와 수원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 익산 '미륵사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린다. 양산 통도사를 비롯해 고창 고인돌유적, 함양 남계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처음으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양산 통도사에서는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찰 창건 설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화엄 세계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통도사의 미디어아트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맵핑·빛 오브제·디지털 민화 특별전의 총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통도사 산문을 지나 무풍한송로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빛 오브제 프로그램은 중중무진 화엄세계에 드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미디어콘텐츠 맵을 시작으로 화엄의 진리를 설한 '법성게' 오브제, 홀로그램, 미러 오브제, 라이팅 오브제 등 다양한 볼거리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매일 저녁 오후 8시, 8시 30분에 디지털 미디어 맵핑으로 투사·상영되는 미디어아트 메인쇼는 '화엄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발견하다'를 부제로 화엄으로의 첫걸음에서부터 종착지까지의 여정을 다양한 미디어아트의 연출기법을 통해 그려낸다. 디지털 민화 특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동안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민화 작품 15점을 초고화질 화면으로 생생하게 담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는 '백제의 빛 희망을 쌓다-적공지탑불휴'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드론 쇼, 공공 미술 프로젝트, 관람객 동작에 반응하는 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성민 기자

조선왕실 원불 흑석사 아미타불좌상 조명한다

한국미술사연구소, 9월 17일 국박서 학술대회

국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600년 왕실 원불 흑석사의 국보 목조아마타불좌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종합적 연구'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불상의 양식·복장물·전적류 등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티베트식 명(明)양식 불상과의 비교 연구(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 연구(고승희 동국대 외래교수)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의 미술사학적 연구(주수완 우석대 교수)가 소개된다.

토론자로는 손영문 문화재청 문화재상임전문위원,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이수예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국보로 지정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조선 초기 양식과 더불어 티베트계 명양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불상으로 1993년 그 가치가 인정돼 국보로 지정됐다"며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29회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삼보 귀의하옵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던 지난 2년,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넉넉한 불령산 자락의 품에서 좋은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히 총동문회소식을 알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2시
장소 자양전
문의 054-432-2652

안건 1. 총동문회 운영및 발전방안
2. 장학금 지급
3. 경조사 지급
4. 기타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2년 8월 부터
■ 개 강 : 2022년 9월 5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